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으로 은혜 충만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시된 기도문들은 각각 다른 주제와 상황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예배의 성격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1 - 추수감사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

가을의 풍성함이 절정에 달하는 9월 셋째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고,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2 - 회개와 새로운 다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펴보면,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원망을, 겸손보다는 교만을 드러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주소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문제,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일에 소홀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새신자들과 젊은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제때 채워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주소서.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더욱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직장과 학교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3 -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선교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만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이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 없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었듯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음 전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SNS와 온라인 매체를 통한 디지털 선교가 더욱 활발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아프리카의 경제적 어려움,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종교적 제약 등으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많은 선교 활동들이 점차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선교 전략도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선교, 문화와 예술을 통한 복음 전파, 사회봉사와 연계된 실천적 선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셋째주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문4 -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3)

코로나19 팬데믹과 각종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몸과 마음, 관계와 경제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하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 과정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의료진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의 압박 속에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도와주소서.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큼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하소서. 이혼과 별거로 가정이 깨어진 분들,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 부모님들,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며, 새로운 사랑의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을 함께 지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